

순천만정원박람회 마지막 할인 기회 잡으세요

조직위, 네이버 사전 예매 개시
내달 개막까지 예매 최대 20%
전 기간 입장권은 1만원 할인
전남도민 50% 우대 할인 적용



개막 한 달 남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온라인 예매 수요를 잡기 위해 판로를 넓히고 각종 할인 혜택을 내놓았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누계 판매액은 44억9300만원으로, 목표 판매액(213억원)의 21.1%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판매액은 6630만원으로 집계됐고, 박람회 전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입장권은 3억5000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조직위는 이달 말까지 박람회 입장권(사전)을 최대 20% 할인하는 사전 예매를 진행하며 성공 개최 분위기를 북돋을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도 박람회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외 박람회 누리집과 전용 모바일 앱, 인터파크(티켓), 야놀자 등에서도 입장권을 살 수 있다.

조직위는 관람객의 입장권 구매 편의를 위해 네이버 포털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검색하면 바로 예매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순천시가 지난해 박람회장인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은 158만5000명의 모바일 자료를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은 모바일 기기 활용도가 뛰어난 1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온라인 구매 통로를 확대하면서 'MZ 세대'의 입장권 구매가 늘 것으로 시 측은 내다봤다.

네이버 예매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온라인 예매 경품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공식후원 은행인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 영업점, 순천만국가정원 서문에 있는 사전 예매처에서도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사전 예매를 하면 정상 입장권 가격(일반권)보다 1000원 할인된 금액인 성인 1만4000원, 청소년 1만1000원, 어린이 7000원으로 박람회를 즐길 수 있다.

박람회 기간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한 '전기간권'은 사전 예매 때 정상가에서 1만원 할인한 성인 5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는 3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순천시민을 비롯한 전남도민의 경우 추가로 50% 우대 할인까지 적용된다. 전남도민 할인이 적용되면 성인 2만5000원, 청소년 2만원, 어린이 1만5000원에 전기간권을 가질 수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박람회가 열리는 4월부터 10월 까지 아우르는 전기간권을 구매하면 봄, 여름, 가을에 걸쳐 색다른 국가정원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모두 놓치지 않을 수 있어 전기간권이 높은 구매율을 보인다"고 말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도심 일원에서 열린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경로당에 친환경 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협약



구례군이 구례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구례군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업무 협약을 맺었다. 구례군은 그동안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공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유기농 친환경 쌀로 바꿔서 공급한다. 구례군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내 경로당 288곳에 연간 2378(20kg들이)포를 제공한다. 또 협약에 따라 친환경 쌀 판로를 확대해 농민과의 상생을 추구할 방침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관내 친환경 쌀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 증진에도 기여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틀린 기차마을 찾아 보세요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이벤트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3월 한달 주말 관광객을 대상으로 '틀린 기차마을 찾기' 게임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매달 색다른 이벤트를 운영 중인 섬진강기차마을의 3월 이벤트 주제는 '기차마을 탐험 해방'이다. 봄을 맞이해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차마을 곳곳을 탐험하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3월 이벤트의 핵심 프로그램은 '틀린 기차마을 찾기' 게임이다. 이 게임은 대중에게 친숙한 틀린그림찾기 게임을 기차마을 곳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벤트다.

단순히 종이 속에 사진 두 장을 비교해서 틀린부분을 찾아내는 놀이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에서 뛰놀며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게임에 활용할 미션카드는 행사부스에서 받을 수 있다. 미션카드는 게임장소 4곳(소망정, 중국정원, 꼬마광장, 치치뿌뿌놀이터)의 실제 모습이 변형된 사진으로 구성됐다. 게임 참가자는 게임 장소 4곳에 직접 가서 실제 모습을 보고 미션카드와 다른 부분을 5개씩 찾아 정답을 표시하면 된다.

틀린그림을 전부 찾으면 행사 부스에서 정답을 확인받고 완료 인증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정답이 아닐 경우 안내자에게 힌트를 받아 다시 게임에 도전할 수 있다. 스탬프 4개를 전부 찍은 참가자는 즉석에서 상품을 직접 뽑고 선물도 받는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



보성군 별교읍 우리동네 복지공동체가 최근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를 찾아 주거환경을 개선 봉사를 펼쳤다. <보성군 제공>

복지사각지대 발굴...어디든 달려갑니다

보성 별교 읍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6명 찾아내 생활안정자금 지원

보성군은 '우리동네 복지공동체'가 최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 6명을 선정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했다.

최근 보성군 별교읍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는 별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들 가구에는 긴급 지원금 20만~4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별교읍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는 2019년 창단해 11명이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집집마다 수리 봉사를 다니고 위기 가구를 살피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1인 가구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펼쳤다.

오경택 별교읍 복지공동체장은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계신다면 복지공동체들이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선남읍 별교읍장은 "생업으로 바쁘지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복지공동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별교읍 행정복지센터도 지속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 '미세먼지 신호등' 2곳 추가 설치

고흥군이 대기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최근 도덕면·풍양면에 추가 설치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색상과 모양으로 실시간 표출한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좋음(파랑), 보통(초록), 나쁨(노랑), 매우 나쁨(빨강)의 4단계로 구분한 정보를 실시간 안내한다.

미세먼지 농도 표시뿐만 아니라 오존, 온도, 습도 등 다양한 정보도 표시된다.

미세먼지와 오존주의보·경고 발령 때는 경고 문

구도 표출한다. 고흥군은 지난 2021년부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달 현재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총 1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군비 5000만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신호등이 없는 5개 면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에게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해 야외활동 등 생활환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여수시 섬박람회 홍보 대표단 9박 10일 미국 주요도시 방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기명(사진) 여수시장이 우호 도시인 뉴포트비치시 초청으로 9박 10일 미국 출장에 나섰다.



여수시는 정 시장을 필두로 한 섬박람회 홍보 대표단이 2일부터 9박 10일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와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호 도시인 뉴포트비치시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정 시장과 김영규 시의회 의장, 섬박람회지원과 공무원 등이 동행했다.

첫째 날(3일) 일정은 샌프란시스코 관광협회와 회의를 열고 관광 산업과 섬박람회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을 논의한다. 다음 날에는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 본사를 찾아 섬박람회를 홍보하고 관광 숙박 관련 협업을 상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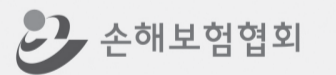
이후 로스앤젤레스로 옮겨 우호 도시 뉴포트비치시를 찾아 노아 블룸 시장과 최석호 전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을 만난다.

노아 블룸 시장에게는 이날 섬박람회 공식 1호 초청장을 줄 계획이다.

7일에는 마리나 델 레이를 방문해 항만 배후지역을 시찰하고, 8일에는 샌디에이고로 이동한다.

9일 샌디에이고에서는 도시재생지역을 둘러보고 항만청을 방문해 샌디에이고항의 전반적인 운영과 개발 현황을 알아볼 예정이다. 이후 여수항과 연계점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에 참여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채주본부장 chkim@



돈돈돈한 지키자 국민건강!

실손의료보험!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